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발 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문의 : 이기훈 간사 010-8246-1022 spark946@hanmail.net)
제 목 **[취재협조요청]**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문민국방장관 임명 촉구 1인시위
날 짜 **2020. 8. 30(일) (총 3쪽)**

취 재 협 조 요 청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문민국방장관 임명 촉구 1인시위>

서욱 후보자는 국방장관 적임자가 아니다!

국방개혁과 문민화 역행하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문민국방장관 임명하라!

일시 : **2020년 8월 31일(월)~9월 4일(금)**,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욱 현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서욱 후보자가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 등의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서욱 후보자 지명은 국방개혁과 문민화에 역행하는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서욱 후보자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책임자가 아닙니다. 장성감축, 방만한 군/부대 구조 축소, 3군 합동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국방개혁의 과제들이 육군의 반발로 개혁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방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인 육군의 최고 수장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을 개혁에 걸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얽매여있지 않은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제시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기반 조성”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민국방장관의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 또한 청와대는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실현할 책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의 측면에서도 서욱 후보자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본디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문제로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해야 마땅하며, 이미 우리 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욱 후보자는 "현재는 조건에 전제한 전작권 전환이니까 조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전히 ‘조건의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조건’에 매달리는 이상 전작권 환수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조건과 능력에 연연하지 않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 전작권 환수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국방장관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통해 국방개혁과 문민화에 역행하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의 철회와 문민국방장관 임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개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문민국방장관 임명 촉구 1인시위>

일시 : 2020년 8월 31일~9월 4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주요 요구

- 서욱 후보자는 국방장관 책임자가 아니다!
- 국방개혁과 문민화 역행하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문민국방장관 임명하라!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끝)